

의사이기 이전에 진정 사람냄새 나는 박성빈 원장 (안과전문의)

안과의사 박성빈 원장이 바라보는 눈
환자, 직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하지만 꽤 감동적인
'눈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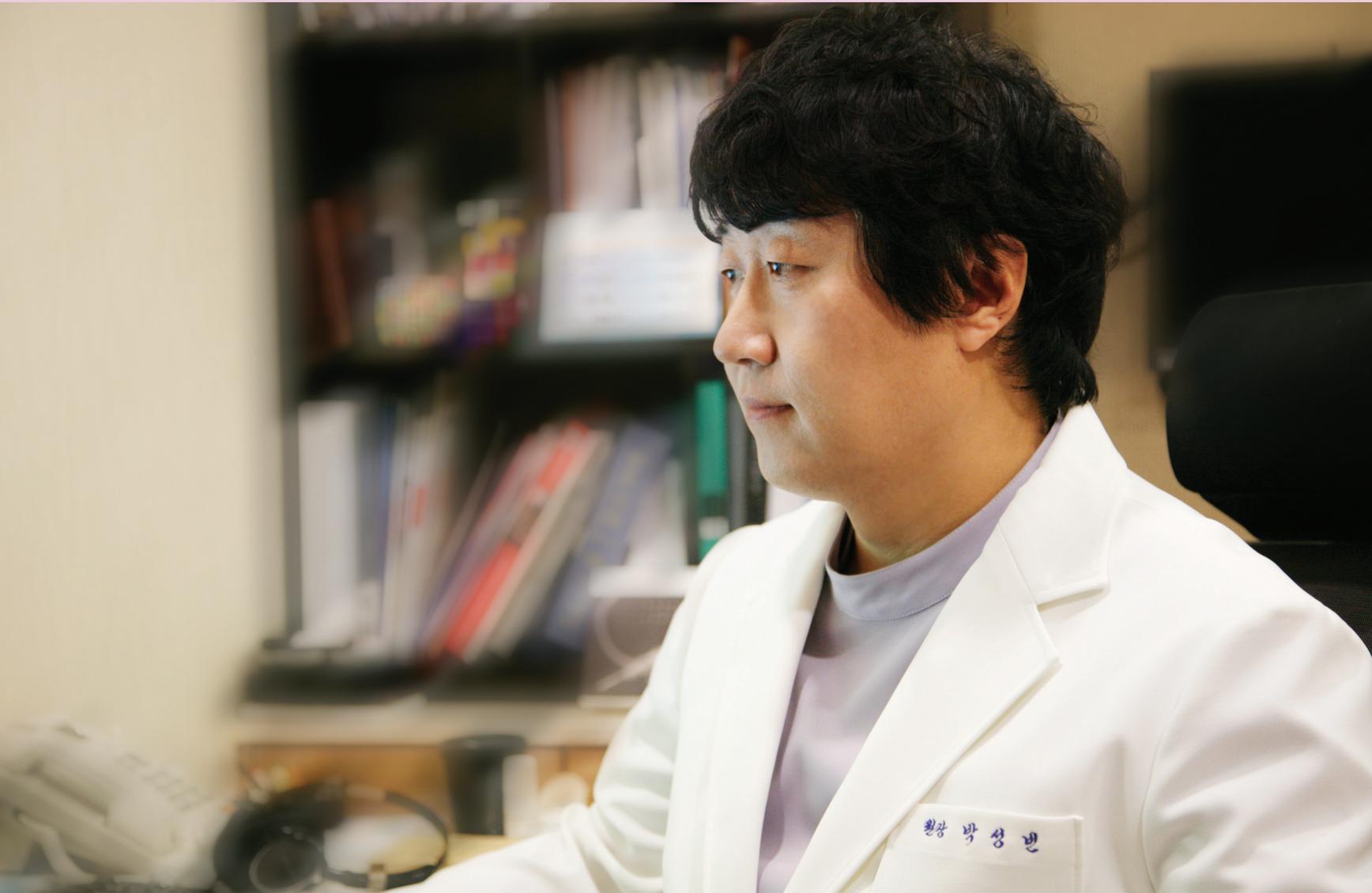
글. 박수빈 편집국장

참으로 아름다운 Magnificent
박성빈 원장 그를 떠올리게 하는 말, 말, 말

박성빈 원장의 세상을 보는 지혜는 탁월하다.
그래서 그는 고요하지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의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를 만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먼 길을 돌아오는 느낌처럼 아득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 만큼 먼 길을 돌아온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 때문에 박성빈 원장은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더 짙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Inspect, Expect,
Respect, Prospect, Retrospect*

좋은 의사를 말하다;

필자는 4년을 넘기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 시간은 꽤 값진 경험이었다고 자부한다. 그 사이 나눔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매력적인 사람의 의사를 보는 시각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 참으로 아름답다는 magnificent라는 단어가 늘 생각나게 하는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냄새 나는 박성빈 원장을 만나는 일은 설레기만 하다.

안을 들여다 보다 *Inspect* 올바른 검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50여 가지의 검사 결과를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한다. 의사의 직감으로 그저 넘겨도 될 일이지만 그에게 검사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절대적 가치이다. 개원의 10년이라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도 검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눈이어서, 눈이기에 더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반복적인 일로 치부 할만도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늘 처음인 것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살다보면 습관처럼 생각할 만하지만 새로운 검사시스템 또한 가장 먼저 선택 할 만큼 집요함을 부리는 그의 열정, 안과 의사로서 검사에 대한 부분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의 무던함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의 얼굴과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다 *Expect* 사람과의 소통 Listen, Listen, Listen

그와의 대화는 단연 예술적인 감성이 돋보일 만큼 인간적이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친 필자의 경우도 늘 삶의 고민 중 하나가 어떻게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박성빈원장과의 인터뷰는 순간순간 가슴 뜨거워지는 경이로움을 느낄 만큼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이 공존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힘이 느껴진다. 멋진 기교와 세련된 표현도 없다. Listen, Listen, Listen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렇게 내가 본 박성빈 원장은 직원과 환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Listen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앞을 내다보다 *Prospect*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인 그가 살아가는 방법

평범하게 같은 자리만 유지하는 의사는 결국 21세기가 요하는 의사가 아니지 않을까? 그저 평범하기만 한 의사는 나쁜 의사라고 치부하는 요즘의 치열한 사회적 현상에 보기 좋게 한 발 앞서가는 여유와 진취적 성향을 발휘하는 박성빈 원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요란하지도 부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는 좋은 의사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간혹 척박하고 무감각한 의료계에 집요한 성실함과 도덕적 투명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보여 준 사람. 안과진료영역의 눈부신 발전 앞에 자신의 이익보다 진료의 안정성과 검사장비 수술장비 연구에 대한 집약적인 근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10년 세월 동안 눈부신 안과의 발전은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 직원의 근무환경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주할 법도 하지만 그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의 그러한 철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안과의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또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다시 어떠한 미래의 설계로 가장 사람다운 의사로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의 계획과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을 되돌아 보다 전진을 위해 뒤돌아보다 *Retrospect* 반성할 줄 아는...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산이라고 박성빈 원장은 말한다. 병원이라는 좁은 공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과정에서 의사에게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좀 더 많은 팩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좋은 의사를 넘어 좋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역사회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에 얼마나 큰 변화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는 그는 그래서 과거의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박성빈 원장을 존중한다.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 내 눈이 호사로운 만큼
참 존중하게 되는 Respect한 박성빈 원장

"안내렌즈삽입술! 눈 속에 렌즈를 넣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각막을 절삭하는 라식/라섹이 불가능한 분들께 권해드리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라식/라섹에 이어 알티플렉스
안내렌즈삽입수술 권위자로 그의 이름 석자를 올리기 까지
그의 진료 영역은 확고하다.

라식/라섹의 시력교정 수술을 넘어 안내렌즈삽입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름을 올려놓기 까지 가장 많은 수술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내내 그의 눈과 손가락 끝에서 절대 시선을 땔 수가 없었다. 빼곡히 들어선 환자의 틈 사이사이를 비집고 몇 날 며칠 그를 진정성 있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늘 시간 안에서의 공간을 여유있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사이 병원 안에서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역동적이다. 여유와 역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박성빈 원장을 찾아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다. 늘 과한 업무에 시달리는 필자 또한 눈의 실핏줄이 터지는 건 물론 시급한 눈 때문에 늘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력으로 주체할 수 없는 혼란이 올 때가 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일은 나에게도 기대되는 일이었다.

의사에게 더 나은 삶이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로 전진하는
겸손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여유있게 즐길 줄 아는
대범함이 돋보여야 하는 일이 아닐까?

검사결과 각막이 얇아 시력교정수술이 안된다고
그럼 다른 대안은 뭘까?

박성빈 원장이 말하는 안내렌즈삽입술에 관한 진실

"시력교정술은 크게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로 나뉘게 됩니다. 라식, 라섹은 일반적인 근시환자들에게 적합한 보편화된 시술이지만 지나치게 각막이 얇거나 고도근시 또는 난시, 원추 각막의증 등 각막질환이 있는 경우는 라식이나 라섹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렌즈삽입술로 라식이나 라섹 같이 각막을 절삭하지 않아 각막절삭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각막의 일부만 절개하므로 수술 후 회복이 빨라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안내렌즈삽입술은 라식/라섹과 비교하여 각막을 본래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고 수술로 인한 부정난시 유발을 막을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환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안내렌즈 삽입술을
전문으로 하는...

시술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 안내렌즈삽입수술은 사전 정밀검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박성빈 원장은 대구, 경북 안내렌즈삽입술의 시술경험이 가장 많은 의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안과 의사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알티플렉스 안내렌즈삽입수술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안내렌즈삽입수술 했다면 혹시 알티산 렌즈가 아닌가 확인해보기를 권해드린다.

치열한 경쟁으로 가장 저렴한 재료에 더해지는 저렴한 수술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빈 원장은 절대 그 저렴하기만 한 수술비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절대 알티플렉스의 안내렌즈삽입수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초고도근시, 난시 환자에게 가장 우수한 시력회복과 시력교정을 제공하는 똑똑한 알티플렉스 토크에 주목하라!

"안내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해 영구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고도의 신기술로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종류의 시력교정술 가운데 최고도근시의 경우 가장 우수한 시력회복을 제공하는 차세대 시력교정술입니다. 특히 난시까지 함께 교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알티플렉스 토크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안내렌즈삽입술의 권위자 박성빈 원장. 대구에서 안내렌즈삽입술을 가장 많이 하는 안과 의사로 선정. 세계적인 안내렌즈 제작회사 Ophtec社 부사장 직접 방문, 세계적인 안내렌즈삽입술의 권위자로 박성빈 원장이 선정되는 쾌거까지!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대구의 안과 의료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는 일.

정교하고 치밀한 수술이 요구되는
안내렌즈삽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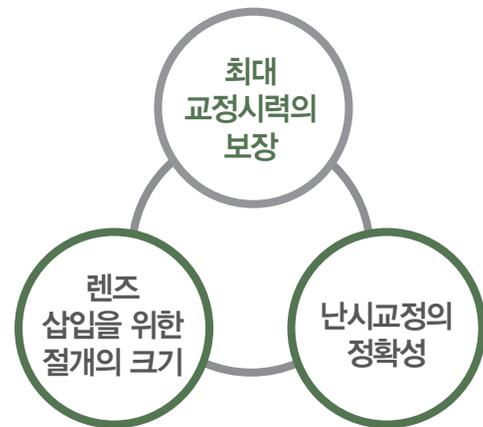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알티플렉스 렌즈와 알티산 렌즈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



안내렌즈삽입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홍채를 기준으로 홍채 앞에 부착하는 알티플렉스, 알티플렉스 토릭, 알티산 등의 홍채 고정형 전방렌즈가 있고, 홍채 뒤와 수정체 사이에 넣는 ICL, ICL 토릭 등 후방렌즈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근시, 난시가 모두 있는 환자에게 단 한 번의 수술로 근시, 난시를 동시에 교정해주고 수술 후에도 눈 속에서 돌아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교정효과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알티플렉스 토릭' 렌즈가 전 세계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검증되면서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가장 중요한 원칙 의사의 풍부한 수술경험

시술하는 의사의 임상경험과 어떤 렌즈를 선택하여 시술하는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넘쳐나는 광고와 저렴한 수술비에 현혹되어 정확한 교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렌즈를 선택한다면 향후에 더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박성빈 원장이 알려주는 렌즈의 선택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렌즈삽입을 위한 절개의 크기를 첫 번째로 두는 것은 감염, 합병증, 수술 후 부작용 등이 절개의 크기와 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절개창은 작을수록 좋다. 렌즈삽입술은 라식/라섹에 비하여 매우 고가인데, 고가인 가장 큰 이유가 렌즈가 전량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번 선택하면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생기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최대교정시력을 정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난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렌즈를 사용하여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시술의 결과가 매우 정확하게 보장될 수 있다. 반면에 봉합장력이나 절개의 크기로 난시를 교정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 교정의 정확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성빈원장은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난시의 교정가능성은 렌즈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성빈원장이
메트로안과 직원에게
안내렌즈삽입수술을 한후에
수술을 한 직원들과 함께

대구 내에는 안내렌즈삽입술을 하는 안과 의사가 몇몇 있으나, 알티플렉스, ICL, 알티산 등 모든 종류의 '렌즈'를 경험하고 다양한 시술경험을 보유한 의사는 박성빈 원장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박성빈 원장은 현재 인증되어 통용되는 대부분의 렌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임상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안내렌즈수술 전문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안내렌즈수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지역이 전체 수술건수 중 5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과 대구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박성빈원장은 주기적으로 서울지역의 안내렌즈 전문의사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수술법을 익히는데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다.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렌즈를 선정하고 권하고자 하는 박성빈원장의 끈은 자세와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성품이 함께한 결과이다.

홍채 고정형 전방렌즈는
재질과 절개창 크기에 따라
알티산과 알티플렉스로 나뉜다.

알티산은 30년 동안 사용되어오던 단단한 PMMA 재질로써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6mm 큰 절개창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시력회복이 느린 부분이 있다. 또한, 큰 절개창으로 수술시 발생하는 난시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수술 후 교정시력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알티플렉스는 알티산에서 한 단계 진화된 렌즈 타입으로, 재질이 부드러워 렌즈 삽입 시 각막 절개창을 작게 만들 수 있어 난시 유발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ICL의 렌즈재질은 Collamer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미 17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매우 안전하고 생체적합성이 높은 재질이다.

이 재질은 눈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신진대사물질이 잘 투과할 수 있는 생체 친화적 물질로 만들어져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투명도가 뛰어나며, 삽입될 곳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 장기간 눈 속에 있어도 매우 안전하다고 한다. ICL은 1993년 세계적인 안과 권위자인 Dr. Zaldivar와 Dr. Skorpik에 의해 처음으로 안내에 시술되었으며, 1997년 CE Mark를 획득하여 현재 유럽 전역에서 시술되고 있다. 1997년 미국 FDA(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남미, 아시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시술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시력교정술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모든 수술이 그러하듯이 안내렌즈삽입술에도 부작용은 있다. 부작용의 발생율이 매우 낮다고는 하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고 수술을 선택하기를 권한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대응할 수 있는 안과전문의를 수술 집도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술로 인해 내피세포가 다소 손상을 받게 되며, 장기간에 걸쳐 저절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드물게 수정체 혼탁(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렌즈의 제거 또는 상태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백내장의 발병 가능성은 10년 이상 통계에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도근시, 고령의 환자의 경우 그 빈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눈을 심하게 비비 경우 백내장 유발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광 박산 렌즈

"알티플렉스 렌즈는 알티산에서 한 단계 진화된 렌즈 타입으로 특수 polysiloxane 재질로 만들어져서 3.2mm 작은 절개창만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시력회복이 매우 빠르고 수술 후 난시유발이 적어 시력 예측도가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는 최근 안과영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렌즈들이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미 10년 이상 그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어 최근 홍채고정형 전방렌즈의 80% 이상의 경우에 알티플렉스가 시술되고 있다. 근시와 난시를 한 번에 교정해 주는 알티플렉스 토릭 렌즈는 수술 후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렌즈로 ICL이 가지고 있는 렌즈의 위치가 틀어질수도 있는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환자를 위해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는

그의 집요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연구는 그에게 평생을 걸어야 할 숙제이자 책무일까?
이런 그에게 나는 감히 제대로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 함이 어찌면 인생은 짧고 의술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은 꽤 멀다.' 라는 말과 동일한 논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여기까지일까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새로운 것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초를 다루는 시간이 그에게 참 다급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이 비약적인 현대 의학의 발전을 무시하고 10년 전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의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박성빈 원장은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한 그만의 법칙으로 지속적인 원칙을 만들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에서 말하는 의술은 이제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세상

좀 더 정확히 말해 의학의 기술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란 것보다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와 수술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남겨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지배적인 박성빈 원장. 그는 절제한다.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겸손한 진리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 늘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도전한다. 지난 날 백내장 수술의 최고 의사로 인정을 받았을 때도, 시력교정수술을 위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옴티라식 장비를 대구 처음으로 도입하였을 때도, 안내렌즈삽입수술을 위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수술을 위해 다른 사람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갈 때도 늘 그의 옆에는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습관처럼 가운을 벗어던진다.

단언컨대! 의사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의학이다.

의사다운 의사에 대해 늘 고민하는 박성빈 원장은 의사의 권위가 환자를 주눅 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한다.

좋은 진료와 수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환자가 의사에게 보내야 할 것이 신뢰라면 반대로 의사는... 정말 의사가 환자에게 돌려 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오랜 시간 필자에게도 잊지 못할 선물일 것이다.

우리는 소위 서울을 가리켜 서울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흐름의 80%를 서울이 차지할 만큼 지방을 다 합쳐도 서울을 능가하지 못하는 조금은 씁쓸한 지방의 현실을 어찌면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의 기량을 더 선점하지 않는 안일함을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 그러한 현실에서 의사의 권위를 버리고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참 좋은 의사 박성빈 원장의 변치 않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